

골프코스 조경수 관리

■ 골프장 : ○○골프장

■ 진단일 : 2021년 4월 8일

■ 진단자 :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김 호 준

1. 해동결과 점검

(1) 전체 코스

① 현 상태.

■ 순행

- 소나무 등의 상록침엽수, 낙엽수 모두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월동을 한 상태로서 병해충과 태풍, 호우, 가뭄 등의 기상재해가 없다면 2021년에도 생육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.
- 벚나무, 산철쭉, 영산홍, 기타 화목(花木)의 개화상태 또한 화려하여 높은 경관가치를 나타내고 있음.
- 활엽수류의 개엽상태 또한 양호함.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해동 후 관리

- 대부분의 수목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나, 클럽하우스 주변 수목의 경우 시비하면 수세 활력도가 높아질 것임.

2. 해송 관리

(1) 전체 코스

① 현 상태.

■ 고사

- 전체 코스 내 해송 개체목이 황화, 붉게 시들어 마르고 고사가 진행되고 있음.
- 고사유형은 여러 나무들 중 1개체 목의 고사가 진행되며, 피해 증상으로 보아 「소나무재선충」 피해와 유사하나 초기 증상으로서 판별이 모호함.
- 경영 및 관리자에 의하면 2020년 8~9월 태풍 이후부터 붉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, 이는 가지 부러짐에 의함일 것임.
- 소나무재선충 피해라고 가정할지라도 현재의 증상으로 보아 분리검경을 위한 시료 채취를 밑줄기에서 할 경우 선충 분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- 즉, 피해가 수관 상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줄기 하단부에까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임.
- 비치 #8홀 그린 좌 전방 카트로 옆 해송 등 골프장 부지 내 모든 고사목은 고사 진행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.

■ 벨리, 그린 우측 벙커 옆 해송

■ 황화, 고사진행 해송(2021. 4. 8.)

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진행상황 예찰

- 현재의 고사 진행 상태로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, 향후 진행

- 상태를 유의 관찰하여야 할 것임.
- 2021년 6월 방문 시 재 진단하여 원인 규명을 하도록 함.

3. 리기다소나무 관리

(1) 전체 코스

① 현 상태.

■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발생(원색수목환경관리학 459~460쪽 참조)

- 경증의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발생하여 몇몇 잔가지가 붉게 말라죽었음.
- 본 병은 리기다소나무의 고질병으로서 건전목으로의 관리가 최선의 예방 및 치료 대책임.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시약

- 병들어 붉게 말라죽은 잔가지는 잘라서 태우고 8월까지 방제 시약할 것.
- 방제는 3~6월에 테부코나졸 500배액을 3~4회 살포하고 송진이 적은 2~3월, 5월 이전까지 테부코나졸유타제 원액 5ml/흉고직경cm 수간 주입.
-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는 3~4년 지속적으로 시약해야 가능함.

■ 시비

- 나무에서 60~70cm 이상 이격한 뿌리권 토양에 나무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지렛대로 깊이 30cm의 구멍을 20~30cm 간격으로 뚫고 고품복합비료 1개/1구멍씩 총 35개/1나무를 시비할 것.
- 시비는 2~3년 지속적으로 할 것.

4. 이식목 관리

(1) 전체 코스

① 현 상태.

■ 쇠약

- 식재 3년이 경과하여 활착된 나무의 지주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.
- 지주 설치목의 결속부위 해제 점검결과, 지주목이 줄기를 조이고 수피가 손상되어 박피되었으며, 3~4cm 크기의 상처가 3곳에 나 있음.
- 이는 줄기에 닿은 지주목이 바람에 흔들리고 줄기가 부피생장을 하면서 생기는 상처임.

■ 예초기 상처

- 예초기에 손상된 상처가 수세약화를 가중시키고 있음.

■ 식재 3년을 경과한 활엽수류 지주목 존치 상태(2021. 4. 8.)

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지주목 제거

- 이식 3년이 경과하여 활착된 모든 이식목은 지주를 제거할 것.
- 지주를 그대로 둘 경우 결속부위의 줄기를 조여 수세를 악화시키고 경관 수로서의 기능발휘를 하지 못함.

■ 시비

- 근원부에서 30~40cm 이격한 거리에 나무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지렛대로 30cm 깊이의 구멍을 20cm 간격으로 뚫고 고품복합비료 1개/1구멍씩

8~10개를 시비할 것.

■ 지주목에 의한 상처(2021. 4. 8.)

■ 예초기 상처유합 자주치료 흔적



■ 지주목 존치 활엽수류 시비방법(2021. 4. 8.)

